

‘참 귀하신’ 학교 운동장

송정서초 인조잔디 훼손 우려 펜스 설치 출입 막아

주민 원성 빔발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송정서초등학교가 최근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한 뒤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학교 정문에 맞닿아있는 운동장 주위에 철제 ‘펜스’(fence·울타리)를 시공,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축구부를 운영해 온 송정서초교는 4억1400만원을 들여 지난 달 31일 학교에 가로 80m, 세로 52m, 1만4천944㎡ 크기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다.

운동장 조성에는 교육부가 학교체육시설 현대화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을 지원했고, 광산구 역시 지역민들이 운동장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1억2천만원을 쾌척했다. 학교는 140만원만을 부담했다. 엄연한 주민 건강시설인 셈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운동장 훼손을 막겠다며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학교 정문 쪽 141m 구간에 2천만원을 들여 높이 1.8m의 ‘펜스’(공정률 80%)를 설치 중에 있다. 공사비는 시교육청에서 펜스 설치비 명목으로 전액 지원했다.

학교 측은 공사가 끝나는 내달 1일부터 일반인들의 운동장 출입을 통제



22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서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펜스’. 학교 측은 내달 1일부터 ‘인조잔디’ 훼손을 우려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 학생이 운동장에 가기 위해 ‘펜스’ 틈새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곳에서 운동을 하며 건강을 다져온 주민들은 이에 대해 ‘펜스’ 때문에 운동장을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축구부가 아닌 대다수 학생의 경우 인조잔디가 아닌 바깥쪽 비좁은 공간에서 축구나 야구 등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 김모(46)씨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조깅 등을 했는데, 다음 달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마땅히 운동할 곳도 없는데, 어디로 가서 운동을 하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송정서초교 관계자는 “음주 소란·야구 등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안전

광주·전남 잇단 ‘폭염 화재’

전력 과부하로 곳곳 발생

폭염으로 광주·전남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변압기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새벽 4시10분께 여수시 여서동 T빌딩 옥상 변압기가 과부하로 폭발, 불이 나면서 3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날 불은 냉방기기 등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1일 밤 10시께 순천시 매곡동 S아파트 배전반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류의 갑작스런 증가를 방지하는 안정기 화재도 이어졌다.

지난 21일 오후 7시34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L복원 판매점 간판에서 전등 안정기 과열로 불이 나 간판을 태우고 7분 만에 진화됐다. 비슷한 시각 북구 문흥동 L의류매장에서도 전등 안정기 화재로 인해 34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전남사업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광주·전남 전력 사용량은 사상 처음 370만kw를 넘어선 376만4천kw를 기록했다. 이는 여름철 평상시보다 10만kw 이상 높은 양이다. /인현주기자 ahj@

크레인에 벼락 6명 사상

22일 오후 2시35분께 경남 진주시 집현면 도로 터널 공사현장에서 11t 카고 크레인에 벼락이 떨어져 크레인 적재함 아래에 있던 공사장 인부 장지제(30·중국어)씨가 감전돼 숨지고 원복권(49·♂)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인 크레인 기사 김모(43)씨는 “갑자기 비가 오자 밖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크레인 적재함 밑으로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가 있던 중 크레인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인부들이 쓰러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신문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kjpc.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독자협력위원회

기말고사 부정행위 목인 교사들이 성적조작 의혹

전남교육청 감사 착수

해남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를 목인하고 도리어 성적 조작을 한 의혹이 제기돼 전남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이 학교 A교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해남 모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도중 수학·사회 등 4 과목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으나 학교당국은 사회과학만 재시험을 봤다는 것이다.

A교사는 나머지 과목에 대해 성적 관리 규정대로 재시험을 보거나 부정행위 학생에 대해 0점 처리를 하지 않고 몇몇 교사들끼리 협의해 학생들

답안지를 고치는 등 성적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A교사는 또 자신이 시험감독을 수확 과목 성적이 부진하자 평가제 B교사가 전체학생들의 성적을 20점씩 올리도록 감독교사 서명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 교장은 “현재 문제가 된 교사 간의 분쟁으로 폭력·명예훼손등으로 맞고소가 돼 있는 상태고, 성적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이 고등학교에 감사팀 3명을 파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정아씨 ‘가짜 학력’ 제기 장윤스님 이사 해임 무효

동국대가 ‘가짜 박사’ 신정아씨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한 장윤스님을 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장윤스님이 자신의 해임을 결정한 이사 회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 의혹 제기의 경우 신씨의 박사학위 위조가 밝혀진 점 등에 비추면 해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장윤스님은 5월 말 이사에서 해임된 뒤 7월 초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학교 측은 “장윤스님이 학교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해임됐고 학교도 신씨에 속아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 삼진강 잦은 익사사고 왜? 물살세고 4~5m 폭꺼진 곳 많아

여름철마다 삼진강에서 익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삼진강 물길을 잘 아는 수상구조 전문가들은 “강 바다에 합정처럼 움푹 패인 곳이 많고 보성강과의 합수(合水) 지점인 압록 일대의 물살이 거세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얇은 물가에서 낚시나 다슬기 등을 잡다가 4~5m 깊이의 바닥이 푹 꺼진 곳으로 미끄러지거나 빠져 변을 당한다는 것이다.

올해 3건의 익사 사고도 바닥이 고르지 못한 상류와 물살이 거센 압록에서 발생했다. 목격자들이 말하는 익사자들의 공통점도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간 후 사라졌다는 점이다.

지난 17년 동안 수상 구조활동

을 벌여 온 ‘119 시민구조대’ 서규복(56) 대장은 “삼진강 상류(곡성 관내)의 움푹 패인 곳은 수심이 5m가 넘는 곳도 많다”며 “과거 모래 채취를 많이 했던 압록 일대는 보성강과 삼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이기에 물살이 거칠어 휩쓸리기 쉽다”고 말했다.

바위와 돌이 많아 바닥이 울퉁불퉁한 상류(임실~압록·36km)에서 올해 3명, 지난해 2명이 익사했다. 반면 상류에 비해 물살이 잔잔해 바닥이 고른 구례지역 중류(압록~남도대교·20km)와 모래가 많아 바닥이 광평한 경남 하동의 하류(남도대교~남해안고속도로 대교·10km)에선 같은 기간 단 1건의 익사 사고도 없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 ‘흠에버 분노통’ 용의자 확인

영업방해 24명 수사

전남지방경찰청은 비정규직 계약 해지 사태와 관련, 이랜드 계열사인 흠에버 순천점에 분노통을 놔둔 용의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공범자들에 대해서도 CCTV 자료 등을 분석, 추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흠에버 순천점 주차장 무빙워크(moving-walk)에서 남자 5~6명이 분노통(10L)을 옮기고 달아난 시간대에 현대타이스코 비정규직 노조원 H씨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고

H씨에게 경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흠에버 측이 매장 진입·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며 불법시위를 주도한 노조 집행부 및 극렬 행위자 24명을 고소해울에 따라 출석요구를 했으며,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랴발 강제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폭력집회 주동자와 과격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분노통 관련자 등 영업 방해자와 공무원형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

니원침 (7289) 김중두



다 좋은 건 축산업자 KCC
DS건설(주) KCC형호, 연소, 동역 대우형
KCC형호, 시스텔형호 생산·시장
▶ 분양 042-2914-8202 ▶ 분양 042-3271-9808
(주)본드나리 KCC세공관, 화인도 디자인
실리콘·방수제·접착제·타이민
▶ 분양 042-3271-8202 ▶ 분양 042-3271-9811

이주여성 성폭행범 CCTV에 델미

○이주여성들 성폭행하고 달아난 노총각이 세 번이나 같은 집을 찾았다가 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찍혀 경찰에 델미.

○22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광양시의 한 건설현장 크레인 기사인 김모(38)씨는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김씨에 범행을 목격한 G(여·24)씨에게 접영으로 시집을 온 G(여·24)씨에게 접영으로 시집을 온 G(여·24)씨에게 김씨의 집을 찾았으나 가족 등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G씨는 불안한 마음에 출입문에 지난 6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김씨는 여기에 얼굴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고.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주여성인 G씨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신고를 못 할 줄 알았다”며 “설마 CCTV까지 설치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

/광양=김훈호기자 chkim@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유명한 마술사 3명의 지도를 받아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모집합니다.

1. 마술사 3명의 지도를 받아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모집합니다.
2. 마술사 3명의 지도를 받아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모집합니다.
3. 마술사 3명의 지도를 받아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모집합니다.

문의: 063-53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합서습수대행: 8월 2일~31일까지** ★

합서습수대행 기간 동안 합서습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 063-536-2500

슬수록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70명 경찰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기술

1/3로 줄었다

TEMPIA

065-422-085-701-7117